



문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	과장 정성창	042-481-5258
		사무관 문은정	042-481-5807
 		2019년 8월 20일(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지식재산(IP) 담보대출, 중소·벤처기업에게 가뭄에 단비

-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, 대출여력 상향 등 자금조달에 유용 -

- 올해 4월 체결된 금융위·특허청·시중은행간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, '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적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·벤처기업도 시중은행으로부터 IP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'19.6월말 기준 IP담보대출 잔액은 4,044억원으로 '19.3월말 기준 3,133억원 대비 29% 증가하였다. 상반기 실적증가는 민간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 3월말까지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약 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6월말 기준 793억원으로 급증하였다.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'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IP가치평가 비용지원을 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기업(54개사)을 유선조사*하였다. 그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도 다수 대출을 받았으며,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IP담보대출이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"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" 참고]

* 총 4개 은행(산업·기업·우리·하나)이 실행한 54개사 대출건 조사('19.7.16 ~ 7.25)

□ 동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기존의 신용위주의 여신 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다수 기업이 대출혜택을 받았다.

○ IP담보대출 기업(54개사)의 신용등급은 최저 B-등급부터 최고 BBB+등급(9개 등급) 까지 분포*되었고, 이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BB+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90.7%(49개사)를 차지하였다.

* 대출기업의 신용등급은 (주)나이스평가정보에서 집계

□ 또한 중소·벤처기업은 신용대출 대비 0.5~2%p 금리우대를 받았으며 부동산 담보가 이미 잡혀있어 대출이 어려웠지만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여력이 상향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○ 동 조사항목에 응답한 44개 기업의 75%(33개사)가 IP담보대출시,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*로 대출을 받아 기업의 운전자금,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.

* 우대금리(기업수, 개사) : 0.5%(2), 0.72%(1), 1%(9), 1.2%(1), 1.5%(1), 2%(1), 신용대출보다 저리로 대출받았으나 자세한 금리는 무응답(18)

○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 증액(2개 기업), 기존대출이 있어도 IP를 담보로 추가대출(4개 기업), 기존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(4개 기업)한 사례가 있었다.

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이번 실태조사 결과 IP담보대출이 금리우대, 신용보강, 대출여력 상향 등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”라면서,

“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이 시행 초기인 만큼, IP담보대출이 신용위주의 대출이 되지 않도록 수요기업 의견을 수렴하고, 금융위 및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등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 라고 밝혔다. 아울러, “IP담보대출을 지방은행에도 확산시켜 지방소재 중소·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문은정(042-481-5807)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'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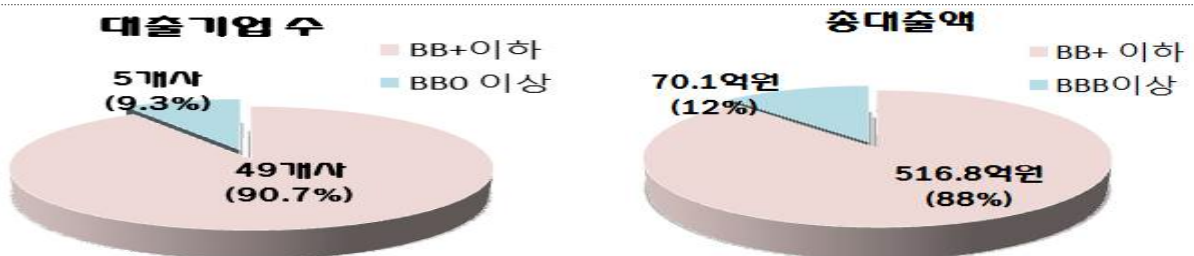
□ (대상·방법) '19년 상반기 IP가치평가연계 IP담보대출이 실행된 54개 기업에 대한 유선조사 및 신용등급 조사('19.7.16. ~ 25.)

□ (신용등급) 54개 대출기업의 신용등급은 최저 B- 등급부터 최고 BBB+ 등급(9개 등급) 까지 분포

* 기업 신용등급은 AAA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18개 내외 등급으로 구분되며,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, 통상 BBB-이상부터 우량등급으로 분류(출처: 한국기업평가, 기업 신용정보는 (주)Nice평가정보)

신용등급	D	C	CC	CCC	B-	B0	B+	BB-	BB0	BB+	BBB-	BBB0	BBB+	A-	A0	A+	AA-	AA	AA+	AAA		
신용대출	비우량등급										우량등급											
IP담보대출					'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신용등급 분포																	

○ IP담보대출은 우량등급(BBB-이상) 기업보다, 비우량등급(BB+이하)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(총 49개사, 전체 대출기업의 90.7%)



< 신용등급별 IP담보대출 현황 >

(단위 : 개사, 억원)

구분	비우량등급							우량등급				합계
	B-	B0	B+	BB-	BB0	BB+	계	BBB-	BBB0	BBB+	계	
대출기업수	6	3	14	12	10	4	49	2	1	2	5	54
총 대출액	35.5	65	102.9	167.8	77.2	68.4	516.8	32.1	3	35	70.1	586.9

* '19년 1~6월까지 특허청 IP가치평가 지원사업과 연계한 신규 대출금액(특허청이 은행에 유선으로 조사하여 파악한 금액으로 실제 대출금액과는 다를 수 있음)

□ (정책효과) 응답기업 조사결과, 신용대출 대비 약 0.5~2%p 금리 우대를 받았으며, 대출여력이 상향되는 효과도 있음

- 응답기업의 75%(44개 중 33개 기업)가 IP담보대출시,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*로 대출을 받아 운전자금 등에 사용

* 우대금리(기업수, 개사) : 0.5%(2), 0.72%(1), 1%(9), 1.2%(1), 1.5%(1), 2%(1), 신용대출보다 저리로 대출받았으나 자세한 금리는 무응답(18)

-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 증액(2개 기업), 기존대출이 있어도 IP를 담보로 추가대출(4개 기업), 기존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(4개 기업)한 사례가 있음

< 기업 IP담보대출 활용 사례 >

- ▶ (D社) 부동산이 없어 신용대출을 고려 중이었는데, 은행 권유로 신용대출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0.5% 낮은 금리 적용
- ▶ (U社) 기존 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하여 금리가 인하되었고, 이를 통해 신규사업 투자를 진행했으며, 매출액 증가(35 → 50억원) 효과 기대
- ▶ (J社) 기존 신용대출 4~5%대 금리에 비해 2% 후반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아 현금흐름이 원활해졌으며, 대출금액을 원자재 구매에 사용